



국회는 13일 지식경제위와 농수산식품위 등 13개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협 부실화, 촛불집회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지경위 '키코' 피해 中企 대책 추궁

◇지경위=이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은 특히 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중기형 지원대책이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환율이 1천400원대를 목전에 둘에 따라 키코로 인한 피해도 1조7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구제금융을 확대해 키코 피해업체들의 출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키코 관련업체는 평균 12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기형 대책은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 편드조성이거나 손실금의 대출전환 같은 횡기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자금 만기 연장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위=이날 수협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합의 전반적 경영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6월 현재 94개 지역·업종 수협 가운데 32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자본금이 출자금을 밀도는 부분 자본잠식 조합도 21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진래 의원은 작년 말 현재 7개 조합의 순자본비율 -20% 이하로 부실에 빠졌고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도 41개에 이른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조재숙(민주당), 류근찬(한나라당)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때 수협의 건전성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수협은 대다수 조합의 경영이 개선 주제에 있으며 현 상황을 전체 수협의 경영 악화나 부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년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47개 조합 가운데 지금까지 10개 조합이 MOU



13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서갑원,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장악 기도 등 문제를 따지며 고통길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위

전국 수협 전반적 경영 부실 질타

행안위

촛불집회·유모차 부대 수사 논란

복지위

靑 국민연금기금 투자 개입설 공방

를 출입했고 13개 조합은 1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위=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집회의 성격과 유모차 부대 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가 이명박 정권의 전복을 노린 친북좌파 세력의 조직적策동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를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가 먹을거리 안전을 우려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경찰은 공안탄압을 연상케 하는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촛불집회가 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에 통일 연방조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친북좌파 세력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건재를 과시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지탄받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봤는데 빼놓지 않고 코드를 맞추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던 건 일선 경찰을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든 것"이라고 김 청장을 추궁했다.

김석기 청장은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위=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속에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해준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정책수석이 국제금융 위기가 심각하게 전전되자 '재정 안정성 위주로 투자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맞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박해준 공단 이사장이 8월 27일 청와대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한 뒤 국민연금이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천654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면서 "9월 매수액이 올해 1~8월 매수액을 다 합친 약수(1조4천667억원)보다 5천억원 가량이나 많았다"며 "청와대 연금운용 개입설"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금공단은 박 이사장이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대폭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해준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정책수석이 국제금융 위기가 심각하게 전전되자 '재정 안정성 위주로 투자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맞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박해준 공단 이사장이 8월 27일 청와대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한 뒤 국민연금이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천654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면서 "9월 매수액이 올해 1~8월 매수액을 다 합친 약수(1조4천667억원)보다 5천억원 가량이나 많았다"며 "청와대 연금운용 개입설"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금공단은 박 이사장이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대폭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해준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정책수석이 국제금융 위기가 심각하게 전전되자 '재정 안정성 위주로 투자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 킴 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당 접수중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 시 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 금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출 교 보 보 복 소 기
● 정 육 무 세 원 찰 공 관 정 전 호 지 방 술

'09년 시험은 자금부터

● 대목모집 21여명: 9급 국기자 4월 정승, 7·9급 지방직 8월에는 7·9급 국기자, 7·8월 시험
※ 내년부터: 연령상한 없었다 (생활안정, 시군노조)

● 개 강 11 월 1 일주·아기만 모집
(현재 예약판수증)

● 합격 회원 모집
● 6개 월: 900만 원 (교제 17개월 포함)
● 주·야간반+기초(英語)부록과 강
※ 수강료가 저렴, 결승합격 확신함!

무동고시학원 www.mdgosi.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학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月 3日 (주,야) 처음 시작하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능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전남도내 수협 자본잠식 심각



(79.2점) 등에 이어 5위, 민원 민족도에서는 81.5점으로 강원청(84.9점), 경북청(84.2점), 충남청·전북청(83.6점), 충북청(81.8점) 등에 이어 6위를 각각 기록했다.

16개 중 10개가 자본잠식 상태

전남도내의 16개 수협 중 10개가 자본잠식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시진)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범 의원이 13일 배포한 수협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4개 조합 중 34%인 32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6개 중 10개, 강원 9개 중 4개인 반면, 경남은 14개 중 1개뿐이었다.

전남의 자본잠식 상황은 강진·신안·완도·소안·진도·해남·흑산도·거문도·고흥·전주·제주 등 13개 조합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전남도 10개 조합 자본잠식액은 1천729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48.4%나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이후 전남 16개 수협에 경영개선자금 1천30억5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총 지원액 2천490억5천만원의 41.5%나 된다.

전남경찰청 치안민족도 최하위

전남경찰청 교통과의 치안민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13일 배포한 '지난해 지방경찰청 분야별 치안민족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의 교통과 치안민족도는 74.1점으로 전체 14개 지방경찰청 중 11위를 기록했다. 전북경찰청이 85.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이후 전남 16개 수협에 경영개선자금 1천30억5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총 지원액 2천490억5천만원의 41.5%나 된다.

전남청은 지구대 치안민족도에서는 77.4점으로 제주청(83.9점), 전북청(83.2점), 강원청(81.5점), 경북청

광주·전남 레지오넬라균 검출 급증

광주·전남지역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사를 참여하는 비율은 0.2%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1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2008년 형사사건 검거인원은 85만4천70명인데 반해 변호인의 참여 횟수는 563건으로 나타나 비율은 0.07%에 그쳤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의 경우 피의자 2만5천810명 가운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5건에 불과, 0.02%에 그쳤고 전남청도 2만9천985명의 피의자 가운데 단 2건(0.01%) 만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에 참여했다.

광주·전남 레지오넬라균 검출 급증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레지오넬라균(호흡기 질환 유발) 검출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13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꿀벌방 182곳 중 24곳(13.2%)에서 기준치를 넘긴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데 이어 2007년 346곳 중 55곳(15.9%), 올해는 314곳 중 68곳(21.7%)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145곳 중 1건이 검출됐던 것이 2007년에는 213곳 중 24건으로 증가했고 전남지역에서도 지난 2006년 342곳에서 4건 검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07년에는 22건으로 늘었다.

/박지경·김지율기자 jkpark@kwangju.co.kr